

3·1절…시국에 부대끼는 태극기

3·1절이다. 일제에 항거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자랑스러운 날이다. 이를 기리고자 매년 3월1일이면 손에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하지만 올해는 곳곳에서 망설이고 있다. ‘탄핵정국’에 태극기를 들었다가 자칫 ‘탄핵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까닭이다.

광주시는 1일 낮 1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만주의종각에서 제98주년 3·1절기념 타종식을 연다.

타종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종교단체, 고려인 등 16명이 참여,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염원을 담아 33회 타종할 예정이다. 광주시민 200여명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아리랑을 부를 계획이었

월드컵 팬 국민 응원도구 “보수단체 시위에 쓰여서” 학교·시민 계양 고심
광주시 오늘 타종식 때 태극기 나눠주지 않기로

다. 태극기는 광주시가 무료로 나눠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태극기를 나눠주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의 ‘태극기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고민이다. 3·1절 기념행사에 참가해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사랑 실천’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올해는 어찌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매년 3·1절 마라톤에 참가해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사랑을 가슴에 새겼는데 올해는 태극기를 들었다가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고심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3·1절이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걸었던 시민들도 올해는 꺼리고 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1절이면 안내방송을 통해 집집마다 태극기를 계양해달라고 독려했는데 올해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3·1절은 국경일인데 굳이 탄핵정국에 휩쓸려 태극기를 외면할 필요가 있는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여는 ‘3·1 시국기자회견’에서 태극기를 들기로 했다. 광주본부 세월호 희생자를 상징하는

노란리본을 단 태극기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을 단 태극기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겠다고 밝혔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7일 3·1절 성명을 내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시위에 태극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항일 독립운동 때도, 월드컵 때도, 태극기는 민족과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상징물이 돼버렸다”면서 “태극기를 호도하는 이들에 맞서 3·1절 시국기자회견 때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태극기의 참뜻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수피아여고 만세운동 을 재연행사 결국 무산

3·1절에 맞춰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광주독립만세운동(1919년 3월10일) 재연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지난 28일 광주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3·1절 기념행사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 열여오던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공휴일 학생동원에 따른 학교 측 부담, 까다로워진 보훈처(정부) 예산 지원절차, 재연행사 추진단체 구성 지연 등의 이유로 1998년부터 개최해온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광주일보 2월 21일자 6면>는 사실이 알려진 후 광주지방보훈청이 예산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학교 측이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추진위 관계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열여오던 만세재연 행사여서 어떻게든 개최하는 방향으로 광주보훈청과 협의했으나,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나서야하는 수피아여고 측이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밝혀 결국 무산됐다”면서 “내년엔 만세재연 행사를 꼭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잠든 것 못보고…어린이집 원생 통학차량 방치

광양시 30분 간헐다 행인이 구조

광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수십 분 동안 통학차량에 갇힌 채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광주의 유치원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폭염 속에 갇혀 있던 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만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국이 마련한 사고예방 대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광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광양의 H 어린이집에서 원생 A(7)양이 45인승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30여 분 동안 갇혔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버스에 타 잠이 들었다. 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인솔교사 B(26·여)씨는 잠든 A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만 하차시키고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버스 기사 C(63)씨도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A양은 30분 넘게 차에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유치원에 알려면서 구조됐다. 당시 차 유리창에 섀팅이 칠해 돼있어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다가 A양의 학부모가 항의하자 지난 23일께서야 뒤늦게 보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교육지원청은 어린이집 측이 통학버스에 비상벨과 정차를 알리는 날개형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한 점을 파악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아이들이 그린 빨강머리 앤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 열린 ‘빨강머리 앤에게 건네는 말’ 기획전에 참가한 참빛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보드판에 붙일 빨강머리 앤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1개월째 중단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대법 판결 지연에 상당기간 차질 불가피

주심 재판장 퇴임 따라

11개월째 중단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심 주심 재판장이 퇴임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과 관련해 주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이 지난 27일자로 퇴임했다. 담양군은 애초 이 대법관이 퇴임 전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주심 재판장이 퇴임함에 따라 새로 주심 재판관과 선고기일을 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어 판결이 상당기간 지연되게 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 퇴임 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판결이 늦어지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내 관광호텔 공사 중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재일·2012년 10월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4월 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메타프로방스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진행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1개월째 중지됐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고법의 판단처럼 군수 결재일이 아닌 공고일(2012년 11월1일)이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에 광주고법 판결에 불복,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을 경우 관광호텔 공사는 이뤄지게 되고,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공사 중지 상황이 계속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두살배기 아들 폭행치사 시신 유기 부부 검찰 송치

시신 못찾고 경찰수사 마무리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어머니는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광양경찰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강모(26)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강씨의 아내 서모(21)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해 지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혼욕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여수시 신덕동 바닷가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가 서로의 범행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거짓말탐지기와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강씨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서씨는 시신을 함께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 강씨는 애초 가방에 찬 시신을 바다에 버리려다가 가방이 물에 뜨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근처 야산에 5~10m 올라가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강씨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 24일 여수시 신덕동 바닷가 야산을 정밀 수색한 경찰은 10~13cm 크기의 뿔조각 3개를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뿔조각이 너무 작아 피해자의 시신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광양=김경원기자 kkw@

“버릇없이 욕 했다”며 머리채 잡고 싸운 이종사촌 남매



○…“누나에게 버릇없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이종사촌 남매가 나란히 경찰서 행.

○…지난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빌라에서 동생인 장모(28)씨가 버릇없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구모(여·30)

씨가 장씨의 머리채를 잡고 장씨도 구씨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폭행한 혐의.

○…이들을 조사한 경찰은 “이들은 이종사촌 남매로 동생이 누나에게 먼저 욕을 한 것이 발미가 돼 싸움으로 커진 것 같다. 대부분의 이종사촌은 친 남매보다도 서로를 더 챙기는 등 사이가 돈독한데 이들은 치고 받고 했다”며 혀를 끌권.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나주,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